

◆ 政府 施策 ◆

◆ 電氣機器 産業의 最近 動向 ◆

『본 자료는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에서 발표한 「전기기기 산업의 주간동향」 내용중 일부를 회원업체의 참고 자료로 발췌·게재하는 것입니다.』

국내 동향

■ 전기기기 수출, '95. 1월 동기대비 16.9% 증가

— 전자렌지등 가정용기기와 의료기기 및 계측기기의 증가가 수출을 주도하여 299백만불을 기록

〈전기기기 95. 1월 수출 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94		'95.1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월	1~12월		
중 전 기 기	39,723	742,731	41,431	4.3
전 선	23,256	361,661	21,836	△6.1
가 정 용 기 기	117,301	1,718,467	139,476	4.2
조 명 기 기	16,553	220,556	20,244	22.3
의 료 기 기	8,899	160,134	15,324	72.2
계 측 기 기	24,731	380,585	35,761	44.6
시 계	17,251	242,281	16,215	△6.0
전 자 응 용 기 기	7,871	132,388	8,721	10.8
계	255,585	3,958,802	299,008	16.9

■ 통상산업부, 중전기기납품 행정규제 완화 추진

2.15일 한전등 관련기관간의 회의결과, 현재 한전에 납품시에 중전기기 금액의 5%에 해당되는 성능보장 유보금을 폐지하거나,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함. 현재 한전은 중전기기 납품후 성능시험이 완료될때까지 성능보장금을 예치하여, 총 682억원을 지급유보하여옴. 이 보증금이 업체에 지급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것임.

■ 통상산업부, 물가안정을 위한 전선류 가격 인하 유도

전선류 가격이 전년대비 절연전선이 35.7%, 전력케이블이 24.8%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가격의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가격상승의 원인은 전선의 주원료인 전기동의 국제 가격이 근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 미국의 자동차생산 증가,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투기성자금이 전기동 시장으로의 유입등으로 분석. 세계전문기관들의 전망은 전기동가격이 현상유지 또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가격안정대책을 마련. 전선류의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동광석 및 조동의 관세를 무세화, 전선류 수입 확대를 위해 현행 8%의 관세를 2~5%로 인하, 현재 5000톤의 조달청의 전기동비축을 14,000톤으로 확대요청하고, 전기동의 제련능력을 년산 15만톤에서 30만톤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등을 유도하기로 함.

■ 통상산업부, 효율 96.88%, 수명은 2배나 연장된 형광등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효율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주) 금호전기가 8억원(정부, 업체 각 4억원)을 투자하여 '93. 11~'94. 11동안 현재보다 제품의 규격은 소형화 되면서도 전력은 52W로 절전, 수명은 16,000시간으로 2배나 연장된 형광등을 개발했음. 현재 이를 송실대, 아주대, 한국감정원, 제주 우당도서관, 에너지 기술개발센터등에 무상으로 설치, 시험단계에 있음. 반면, 가격은 램프와 안정기를 포함하여 지금의 4,700원에서 12,500원으로 비싼 것이 흠이다. 이 고효율 절전형광등이 전국에 절반으로 보급될 경우, 11.85KWH가 절전되어 하절기 전력수급안정에 기여, 빛의 개선으로 시력보호, 수명연장 및 소형화로 폐기물 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정부는 『고』마크 획득을 지원, 30%의 설치비를 보조토록 '95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달청 구매물자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에 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함

■ 통상산업부, 할당관세등을 통해 변압기 재료인 硅素鋼板의 수급안정

우리나라의 방향성 규소강판의 내수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273천톤이나, 생산은 226천톤으로 물량 부족 전망. 변압기용 재료인 방향성 규소강판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임. 이는 미국, 유럽등은 전력 소비율이 1~3%로서 안정되어 있으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공업국의 전력소비는 급증하는 추세로 이에따라 변압기의 원료가 되는 방향성 규소강판의 수요도 증가추세 지속.

통상산업부는 8%인 규소강판의 관세율을 5%로 조정인하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하고 중국, 러시아등에 수요처를 중심으로 구매촉진단을 파견하는 방안으로 수급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포항제철에 규소강판의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하기로 함.

■ 통상산업부, '95년 하절기 에어컨 수급안정 대책 마련

올 여름의 에어컨 수요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하여 30만대로 전망되나, 제작사의 공급능력은 35~40만대로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 그러나, 통상산업부는 지난해와 같은 기상 이변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판매를 통해 설치에 따른 애로와 매점매석의 가수요를 방지하기로 하는등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함.

2월말 현재 14만대 공급하여 수요의 35%를 충당하도록 했으며, 유통경로 개선, 컴프레서등 핵심부품을 비축하여 비상시 추가여력 확보, 에어컨 긴급수입에 대비해 관세율 인하검토등 다각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

■ 통상산업부, 전기기기산업 정책연구회 발족

통상산업부의 Reengineering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회 발족에 전기기기 분야에는 중전기기, 가전기기, 전자의료기기, 조명기기로 분과위를 구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4개 분과위를 종합하는 전기기기정책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기업의 세계화 비전 정립, 세계화 장애요인 타개 방안,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 및 정부시책의 이해 확대등이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의 각종 모임을 보완하여 학계, 업계, 단체, 통산부 직원의 희망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의 산실로 운영, '95. 12월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 하기로 함.

### 세계 동향

#### ■ 일본 중전기 생산, '92년이래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전기공업회의 발표에 따르면 '94년 중전기 생산액은 82500억엔으로 전년대비 97.6%로 하락.

-이는 '91년 이래로 경기가 후퇴하고 전력투자의 억제와 원가절감등으로 송변전 관련기기의 생산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

#### 〈중전기 생산/수출액〉

(단위: 억엔)

	'92	'93	'94
생산액	90,467	84,508	82,500
수출액	28,590	27,501	28,000

#### ■일본 도쿄, '94. 2월부터, Car Navigation을 통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IVHS 관련)

-교통정보서비스(ATIS: Advanced Traffic Information Service)가 제공하는 정보는 지도상에 특정구간의 최단시간과 경로 제공, 사고, 공사, 통행금지등의 정보와 주차정보등을 PC 또는 자동차 운행장치를 통해 제공

-ATIS는 교통 및 공해 대책의 일환으로 93. 7월 도쿄시와 민간업체 51개사의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된 교통정보서비스로서, 가입금 외에 매월 정보료를 지불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운송업, 건설업, 전기공사관련 기업들이 주로 이용.

## 엔高를 경쟁력강화 好機로 - 정부, 원가절감·제품 高級化 적극 지원키로 -

정부는 최근 '달러폭락-엔·마르크절상'의 국제환율 판도변화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가의 안정기조를 다지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엔高의 여건을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輕工業제품의 자동화 투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공정개선, 원가절감 및 제품고급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1개 대기업이 진출할 때 여러 중소기업이 동반해 진출하는 船團式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활동에 업계는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금융·조세·입지 등면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고도기술을 재조정(내달 1일 시행)하면서 일본의 기술집약산업 유치 및 한·일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엔高현상이 對日무역적자의 심화로 이어졌던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의 수입선다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EU각국등 통화강세가 두드러진 주요시장에서 수입수요가 늘어나고 對美시장에서도 이들 선진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이 유리해 질 것으로 보고 업계의 시장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엔高여파에 따른 부품·소재등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증가와 수출신장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시책을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엔高현상은 수출증가를 낳아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최근 국내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가동률·인력등 고용측면에서의 제약때문에 그 효과가 지난 85~87년의 엔高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中企 基盤造成 資金 6,520억원 지원 - 所要資金 100%범위 最長 10년 연 8.5% -

올해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로 총 652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이란 종전 한국은행의 재할지원에 의해 기업들에게 지원되던 자금을 政策資金 축소방침에 따라 지난해 부터 財政지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또 최근 마련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5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1230억원을 출연했다.

재경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 6520억원의 中企 기반조성자금의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출(수입대체 소재·부품포함)산업설비투자, 기술개발(신기술·도입기술의 기업화·제품화 포함), 환경보전 시설투자, 중소기업생산 시설재 구매등 4가지 용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中企 기반조성자금은 정부예산 3260억원, 은행의 자체 조달자금 3260억원으로 책정, 지원되는데 융자취급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이며 최장 10년(융자기간의 3분의 1을 거치기간 인정)이며 금리는 연 8.5%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여어음할인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500억원을 지원했다.

재경원은 올해 중소기업은행 지원용으로 1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나머지 500억원도 오는 4월에 지원해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7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60억원등 총 1230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위해 책정해 놓은 4300억원(民資사업참여용 200억원 포함)중 아직 출연되지 않은 3070억원을 가급적 조기에 출연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출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비율은 작년말 기본재산의 14배에서 이달말 7배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보증배율이 8.9배에서 8.1배로 낮아지게 됐는데 현행 법정보증지원한도는 기본재산의 15배로 돼 있다.

## 高度技術 外國人 투자 지원 강화 — 새 外資導入法 시행령·규칙 4月 施行 —

오는 4월부터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金融·稅制·立地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민원이 45일 이내에 처리된다.

정부는 작년말 개정된 외자도입법이 발효되는 오는 4월1일을 기해 외자도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밝힌 同法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키 위해 오는 6월에 완공되는 光州 평동공단의 19만8천평, 내년 6월에 완공되는 天安공단의 14만9천평을 각각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분양 또는 저가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평동공단은 업종제한없이 평당 3500원(年)수준으로 10년단위로 임대하고 천안공단은 첨단제조업에 한해 분양 또는 임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자기업이 국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재산가액기준 연 1%수준에서 장기임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고도기술수반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내달부터 본격화 된다.

주요내용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상업차관 도입허용 및 절차간소화(재경원 승인) △관세·특소세·부가세 100% 감면등이며 현재 83개로 돼 있는 고도기술은 이달중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면 수도권에 입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